



CLOSE

joins

JTBC

중앙일보

중앙SUNDAY

Korea JoongAng Daily

일간스포츠

JMnet 더보기



로그인

① 중앙일보 뉴스

경제

라이프

오피니언

찾아슈

포토

검색

전체

정치

사회

지구촌

문화

지역

스포츠 연예

영어뉴스

블로그뉴스

뉴스클럽

보도자료

제보



일간스포츠

지구촌

최신기사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러시아

아태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중앙USA

모바일

고객프리미엄

구독신청

PDF



히든싱어3

만 해도 경품이 와르르~
금 바로 참여하세요!

new audio

V그 이상의 만족~

TV 시청용

무선
이어폰

안 들릴때도
시끄러울때도

화는 실감나게!
의는 집중력있게!

일본 정가 여풍 ... 오부치·이나다 첫 여성 총리 노린다

[중앙일보] 입력 2014.09.13 01:59 / 수정 2014.09.13 02:25

아베, 여성 장관 사상 최대 5명 증용

“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 정계에 여풍을 일으킨 도이 다카코 당시 사회당 총재가 1989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먹을 쥔 채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 선거에서 자민당의 과반 의석을 저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중앙포토]

일본 사회당(현 사민당)의 최초 여성 총재 도이 다카코(土井多賀子·86)가 1989년 9월 참의원 선거 승리를 자축하며 내놓은 말이다. 도이 총재는 이 선거에서 여당 자유민주당(자민당)의 과반석 독주 견제에 성공하며 여성 정치인 돌풍을 일으켰다. 그가 총재로 취임한 86년 7.9%에 머물렀던 참의원 여성 의원 비율은 89년 17.5%로 뛰었고 이듬해 중의원 선거에서도 여성 의원 비율은 이전 1.2%에서 2.4%로 올랐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 후보로도 거론됐다.

일본 언론은 도이 총재가 연단에서 주먹을 쥐고 선거 승리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두고 ‘마돈나 돌풍이

분다’고 표현했다. 일본 여성 정치인의 본격 약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겼다. 도이 총재가 말한 ‘산’은 좁게는 자민당을, 넓게는 남성 중심의 정치 풍토를 뜻했다.

25년이 흐른 지금, 그 산은 여전히 존재한다. 사라진 건 도이 총재다. 11선 의원으로 승승장구했던 그는 2003년 지역구에서 자민당의 신인 후보에게 패했다. 비례대표로 가까스로 회생했으나 총재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사민당 의석도 18석에서 6석으로 줄면서 그

이 시각 주요뉴스

- 日아베 총리 부인 "정치적 비밀병기?" 묻자
- 탈당설 박영선, 빨은 말 철회 명분 쌓았다?
- 차대통령, "이번에 밀어붙이면..." 김무성 우려에
- 금연구역 안 '스모킹 존'...강남대로에 무슨일이
- 대구 초짜 택시기사 김문수 "쇼는 쇼인데..."
- 남편과 사별 50대女, 노후자금 운용 어떻게
- 외국인 손님에 공갈빵을 '라이 쿠키'라 소개하니
- 별거뻔은 여성이 남성으로...기괴한 변화 의미는
- '몸매 A씨 노출' 초밀착 투명옷 입은 모델女
- 초미니 스커트女, 마릴린 먼로 포즈를...학

오늘의 화제뉴스



'몸매 A씨 노출'
초밀착 투명옷 입은 모델女

- 日아베 총리 부인 "정치적 비밀병기?" 묻자
- "박영선, 의원에 만류에 탈당 의사 접고..."
- 차대통령, "이번에 밀어붙이면..." 김무성 우려에

플랜티어학원
커스타'S
오팅집중훈련

환불률 0%의
신화!
믿고 듣는
오팅강의!



2주 오팅 1M/1H

보장!

초보자도
2주만에



는 총재직을 내려놓았고, 일본 정치는 자민당 대 민주당의 양강 구도가 공고해졌다. 그는 2008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가 주역이었던 마돈나 돌풍은 일본 정치 여풍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됐다.



- 초미니 스커트女, 마릴린 먼로 포즈를...헉
- 모델女 노출 패션 바라보는 유명 男배우 표정이
- 주요부위 아슬아슬하게...아찔 노출 모델女
- 외국인 손님에 공갈빵을 '라이 쿠기'라 소개하니
- 벌거벗은 여성이 남성으로...기괴한 변화 의미는
- 가슴골이 협곡, 엉덩이가 산...'비밀사진'
- 비키니女, 토마토즙 뒤집어 쓴채 비틀거리며

2주만에
1H까지
받게 만드는
오픽전문가
커스티!!

비즈링크 AD OP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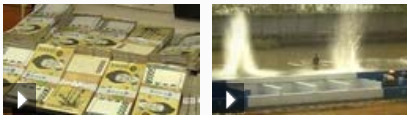


여자들에게 인기男 카사노바 비법공개? 전세계 남자들의 공통 관심사 1위?

프리미엄 AD

- 빈 계좌에 "23억"번 40대男, 알고보니..충격
- 40대男, 부인몰래 농협에 "53억" 숨겨..
- 팔자주름 치료비 얼마?? (의
- "탈모"의 비밀을 푼 전문의..학계'발칵'
- 카드 돌려막던 남성, 농협가서 18억 보상받아..
- 잦은 어깨통증, 3달이면 이것부터 의심해야.. 장
- 민사고 합격 "2478명" 초,중수학공부법 알고보니
- 50대 가장, 농협 계좌에 49억 알고보니..

jtb 투데이 핫



유독 많이 풀린 5만원, 전 부 어디갔나 했더니 투척순간 '평'...훈련병 죽 인 수류탄 알고보니

- 북한 선수단 실력 이 정도였어? 김정은 집권 뒤...
- [단독] 230억 쏟아붓고 매번 틀리는 기상청

AD



이달 초 일본은 다시 한 번 여성 정치인의 돌풍을 기대했다. 주인공은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오부치 게이조(小淵恵三) 전 총리의 차녀인 그는 41세의 나이에 5선의 관록을 자랑한다. 34세에 이미 전후 일본 최연소 장관으로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 내각에서 저출산 담당상을 지냈다. 그가 주목을 받은 건 지난달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그를 간사장으로 임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간사장은 자민당의 돈과 사람을 움직이는 실권자다.

TBS 방송국 PD로 일하다 아버지에게 후계자로 낙점 받고 99년 총리 개인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현재 일본에서 차기 여성 후보감 1위로 꼽힌다. 여성 총리의 꿈은 그에게 낯설지 않다. 아버지 오부치는 그를 어린 시절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의 성과 그의 이름 ‘유코’에서 한 글자씩 따온 별명인 ‘유처’로 부르곤 했다. 세간의 평가도 우호적이다. 다나카 아이지(田中愛治) 와세다대 정치학과 교수는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한다면 그건 오부치가 될 것”이라 단언했다. 블룸버그 일본어판이 그를

제131106-중-57650호

HD내시경을 이용한 가슴성형, 무엇이 다른가요?

가슴성형

신데렐라성형외과의원

스폰서 링크



"노스페이스" 80% 바람막이 창고정리!



김오곤의 비만여성 "이것"알아야 살빠진다

핫이슈 링크



40대 주부 -18kg빠진 "미친감량" 비법!



가난한 예비신부 로또1등 당첨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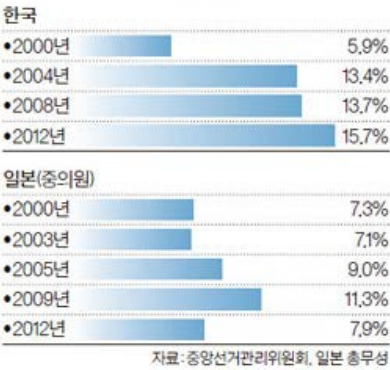
많이 본 뉴스

지구촌	종합	스포츠	연예
1	'라이 쿠키' 맛보세요 ... 들뜬 인천 차...		
2	연기 나는 금연영토 ... 혼돈의 강남대로		
3	숙명여대 작곡과, 교수·학생 진실게임		
4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혐의...경찰...		
5	다문화 동네 가리봉동, 서울의 차이나타운...		
6	상위권 학생들 소신 지원 ... 서울 15개...		
7	[윤대현의 스트레스 클리닉] 스마트폰 없...		
8			

인터뷰한 1일자 기사의 제목은 “일본의 여성 총리, 먼 미래가 아니다”였다.

그가 사상 최연소이자 최초 여성 간사장으로 임명된다면 여성 총리의 꿈에 확실한일보 전진을 이룬 셈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선택은 그가 아니었다. 아베 총리는 3일 개각을 발표하며 11선의 남성 의원 다니가키 사다카즈 전 총재를 간사장으로 낙점했다. 오부치 의원은 대신 경제산업상으로 입각했다.

한·일 여성 국회의원 당선 비율



이를 두고 “아베 총리가 오부치에게 양날의 검을 쥐어줬다”(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는 분석이 나온다. ‘오부치 간사장’ 카드로 오부치에게 세간의 이목을 주목시키는 대신 요직으로 꿈히는 경제산업상 자리를 맡겨 능력 검증까지 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소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 번째 화살은 대부분 경제산업상 담당”이라며 “중책을 맡은 오부치가 잘 해낸다면 당연히 나쁠 게 없고 못 해낸다면 해임하면 되니 아베 총리로선 잃을 게 없는 노련한 수”라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 역시 개각 분석 기사에서 오부치가 “시련의 중책을 맡았다”(아사히신문)거나 “국론이 분열된 원자력 발전 문제도 담당하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더 주목된다”(산케이신문)는 분석을 내놔다.

여성 총리 1호 전망은 도로 안갯속이지만 아베 총리는 이번 개각으로 자신의 친여성 행보를 강화하는 효과를 극대화했다. 숫자부터 일본 사상 최다 여성 각료 숫자인 5명(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과 동수로 맞췄다. 아베 총리는 새 내각 기념 촬영에서도 자신의 앞뒤로 여성 장관 5명을 배치시켜 시각적 효과를 노렸다. 그가 취임 후 “여성이 빛나는 일본을 만들겠다” “2020년까지 지도층 여성 비율을 30%로 늘리겠다”고 외친 것이 공허한 구호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다. 실제로 일본 여성 각료 비율 순위는 이번 개각 전엔 11.1%로 세계 124위에 머물렀으나 개각 후엔 27.8%로 세계 39위로 경총 뛰었다.

이번에 입각한 여성 장관을 보면 오부치의 경쟁자의 윤곽이 드러난다. 주목되는 인물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53) 총무상과 자민당 3대 당 중역 자리인 정무조사회장(정조희장)을 맡은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55)다. 우리에겐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극우 인사로 익숙한 이들은 아베 측근이다.

다카이치는 아베 총리가 “맹우(盟友)”라고 부르며 신임한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마쓰시타(松下)정경숙 출신인 다카이치는 정통 자민당파는 아니다. 93년 무소속으로 당선했다 신진당을 거쳐 96년 “(야당에 있자니) 시간이 아까워졌다”며 자민당에 입당했다. 이후 군위안부 부정 등 아베 총리의 극우 날개로 활약했으며 2006년 아베 총리 1차 집권 당시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으로 첫 입각했고, 2012년엔 자민당의 첫 여성 정조희장을 맡아 아베 총

- 8 AG 성공기원... ‘K팝 페스티벌’...
- 9 [원추 오늘의 운세]토끼띠, 문서관계나 ...
- 10 "불량 불꽃감지기 4641개 전량 교체..."

인포그래픽 뉴스

광유전학으로 뇌 비밀 푼다

빛으로 기억 조작 ... 전기충격 악몽을 데이터 추억으로

전모 드러나는 김정은 도발전략

동부전선 찾은 김정은 "전쟁 준비 부실" 1군단장 강등

농업인의 자긍심이 더 올라갑니다
한광호 농업상 후보자 추천

파워 링크

더보기 >

제5회 일하는사람사진공모전

일하는 사람 사진 찍고 캐논 카메라에 도전하세요~!

<http://pic.joins.com/workpeople2014>

댓글 많은 뉴스

댓글순	추천순	반대순	댓글 왕
1	박 대통령 "기소권·수사권은 대통령 ...		
2	박 대통령, "국회, 세비 반납해라".....		
3	"박영선 사퇴를" "의총서 정리를" "투...		
4	손석희 내레이션 'JTBC 뉴스룸' 티저...		
5	연락 끊은 박영선 "탈당 결행 16일까...		
6	설춘 "'대통령 연애' 발언은 끝까지 ...		
7	박 대통령 "여야 2차 합의안이 마지막...		
8	김우성 새누리당 대표 "담배 피는 사...		
9	국회 복지위 21명 중 12명 "담뱃값 20...		
10	北 국방위, 청와대에 “빠라 살포 중...		

JOINS 추천 기사

남자 올리는 통풍, 예방하려면

볶음 쌀국수, 집에서 만들기

리 측근으로 입지를 굳혔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이번에 정조회장으로 임명된 이나다에게 더 각별한 관심을 쏟는 듯하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최근 측근들에게 “이나다를 여성 의원의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3선에 불과한 이나다가 정조회장이라는 중책을 잘 해낼 수 있도록 7선인 시오노야 류(鹽谷立) 전 문부과학상을 정조회장 대행으로 배치한 것은 아베 총리의 특별한 배려라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아베 총리가 이번 개각으로 당정의 장악력을 다지며 장기 집권을 위한 틀을 짜지만 그 틀 밖에서 틀을 노리는 여성도 있다. 그중 대표격이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중의원이다. 오부치 전 총리 시절인 98년 당시 37세로 최연소이자 홍일점으로 우정상으로 입각한 노다는 자민당 총무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아베 총리가 3일 저녁 개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당시 총리 관저 인근에서 정치자금 모금행사를 열었다. 약 1000명이 몰린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노다 의원을 향해 “여성 총리가 돼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25년 전 도이 전 의원이 움직이지 못한 산을 움직이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전수진 기자

[S BOX] 오부치 동갑 남편은 스타 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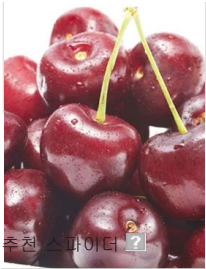


일본 TBS 방송국 드라마 PD 세토구치 가쓰아키(瀬戸口克陽·41·사진)에겐 여러 수식어가 붙는다. ‘도쿄대 출신 엘리트 드라마 PD’‘TBS 드라마국의 스타 PD’‘정치 명가 오부치(小淵)의 데릴사위’.

세토구치는 지난 3일 경제산업상으로 임명된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의원의 남편이다. 나이는 동갑, TBS 입사 동

기(1996년)다. 연애가 공개된 건 오부치가 정계에 입문한 뒤인 2001년이며 2004년 결혼했다. 오부치가를 이어야 하는 부인의 호적에 입적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대외적으론 자신의 성을 사용한다.

세토구치 PD도 부인만큼이나 내로라하는 경력을 자랑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된 ‘꽃보다 남자’(2005)부터 기무라 다쿠야(木村拓哉) 주연으로 당시 역대 일본 드라마 시청



Song of Style



Yellow Paper

중앙일보 트위터



joongangilbo 김무성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기업에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해 줘야 한다 -중앙일보 <http://t.co/atzXFv7H57>
2014-09-17 오전 9:24:26



joongangilbo 진실이 뉴스가 됩니다...손석희 '100분 뉴스' 티저 공개 -중앙일보 <http://t.co/kOJzBbRQTy>
2014-09-16 오후 5:50:21

더보기 >

를 3위에 올랐던 ‘굿 럭!!’(2003) 프로듀서로 활약했다. 한·일 합작 드라마 ‘프렌즈’(2002) 제작을 맡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부인의 영향 때문인지 여성에 대한 관심도 연출작에서 드러난다. 2008년작 ‘어라운드 40’은 40대 전후 여성들의 고민을 그려내 ‘어라 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낳았다. ‘어라운드 40’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는 “일·육아에 정신없는 여성들의 진정한 삶은 무엇인지 다루고 싶었다”고 밝혔다. 오부치 의원은 이런 그를 “집안일을 잘 분담하는 남편”이라며 “남편과 2인 3각으로 육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둘 사이엔 7세·5세 된 아들이 있다.

AD

- ▶ 40~50대 술,담배에 찌든 꼭만한 "혈관"병원 가지마...
- ▶ [정보] 밥먹고 OO마시니 2주만에 -15kg "미친감량"?
- ▶ [이슈] 늦게배운 도둑질, 50억대 재산 결국..

전수진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공유

트윗

0

1

더보기

프리미엄링크

- 서민 대출지원 "최대5000만원까지.."
 - 라식,라섹 할때 "꼭" 이것만 알아두자!!
 - 아이 셋 주부, 남편 몰래 ‘이것’ 만지더니..
 - 강남엄마 月고정수입 "500만원" 대박!
 - 남성수술은 퍼스트비뇨기과 김재영원장
- 김오곤" 비만여성 "이것" 알아야 살빠진다?!
 - 치아가 흔들려서 임플란트 하려면(치)
 - 살 안빠지는 여성 "이것" 알아야 살 빠진다!?
 - 짝 출신 "30억" 재벌男, 알고보니..발칵!
 - 김오곤" 비만여성 운동없이 살뺄수있다?!



눈피로, 시력저하, 노안, 이것 하나면 끝..

최근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눈 피로와 시력저하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아이들은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고, 수험생과 직장인들은 눈 피로와 안구건조에 시달리고 있다. 40대 이상 중장년들은 노안이 와서, 노인들은 백내장, 녹내장 등 각종 눈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 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Saturday

더보기 >



일본 정가 여풍 ... 오부치·이나다 첫 여성 총리 노린다

“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 사회당(현 사민당)의 최초 여성 총재 도이 다카코(土井多賀子·86)가 1989년 9월 참의원 선거 승리를 자축하며 내놓은 말이다. 도이 총재는 이 선거에서 여당 자유민주당(자민당)의 과반석 독주 견제에 성공하며 여성 정치인 돌풍을 ...

- 일본 정가 여풍 ... 오부치·이나다 첫 여성 총리 노린다 [중앙일보] 2014-09-13 01:59
- [현장 속으로] 해밍웨이의 1차 세계대전, 줄리안 알프스 전선을 가다 [중앙일보] 2014-09-13 01:54
- 해밍웨이가 포착한 환멸의 전쟁 [중앙일보] 2014-09-13 01:56
- 관세청 통계로 본 '짝퉁' 시장 판도 [중앙일보] 2014-09-13 01:46
- 도전 멈추지 않는 '꽃보다 할배'... "내 인생은 호기심 천국" [중앙일보] 2014-09-13 01:44
- 미녀 스타의 달콤한 부업 ... '슈가포바' 작년 130만 봉지 불티 [중앙일보] 2014-09-13 01:24
- "아이언돔, 하마스 로켓 100% 못 막는데 ... 대피소 안 가고 사진 찍어 난감" [중앙일보] 2014-09-13 01:35
- 2002년 '군대가라 숯' 이영표 "후배들은 그런 실수 많겠지요" [중앙일보] 2014-09-13 00:27
- 메이저 최저타 김효주 여파 ... 어려워진 핀에 선수들 찢찢 [중앙일보] 2014-09-13 01:11
- 순양 "박태환, 제 기록에 도전해보시죠" [중앙일보] 2014-09-13 01:13

중앙일보 홈 주요기사

중앙일보 홈가기 >

- " [알림] '어른계 공동 재난보도주칙' 제정·시행한
- 박영선 복귀 가능성... '단독 탈당' 분위기 바뀐 배
- 한국은 아예 관심 밖...美 패권 넘보는 '중국판 실
- 대구의 초짜 택시기사 김문수 "쇼는 쇼인데 힘든
- '적절한 마음에...' 30세 직장男, SNS 재미에 빠

- 박 대통령, 김우성이 "이번에 일어붙이면..." 우려
-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 신고...현장엔 野
- [알림] 중앙일보미디어플러스 편집 경력기자 모
- 금연구역 안 자생적 '스모킹 존'...강남대로에 무
- 해병대 훈련병 사망케한 폭발 수류탄, 생산된지

- 無, Free, Zero?... '착한 음식'에 속고 있는 건 아
- 스마트폰 친구 브랜드를 만나다...삼성 '+알파 프
- 김우성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당정 경제정책
- 외국인 손님에게 공갈빵을 '라이 쿠키'라 소개했
- 1986년 국내 첫 개최 아시안게임 '라면소녀'의 신

- 고기엔 레드 와인? 뽀한 공식은 잊어라...'스테이
- 해외 수익 비중, 국민은행 2%...日 미쓰비시는
- 이주열 한은 총재 "물가에 너무 집착...오류 인정
- 안상수 창원시장, 진해지역 시의원에 달갈 불
- 진행 돕는 2만명 가슴에 361'...인천 정령한 중국

포토뉴스

포토 홈 더보기 >



이라크 난민캠프 아이들
‘IS 공격 피해 왔어요~’



‘매혹적인 실루엣’
마드리드 패션위크



미스 아메리카 2015
‘미국 제일 미녀는’



‘언제 어디서든 열정적’
프로페셔널 퍼포먼스



훈련하는 북한 선수단
‘웰 먹어볼까~’



런던 패션위크
‘눈 돌아가는 의상들’



‘로맨틱해~’
수중 웨딩 촬영



패션 록스 콘서트
‘포도월·공연 전부 파격’

로그인 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댓글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셜댓글이란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게시판 관리기준 (0/250자)

등록

가구 렌탈

36개월 장기렌탈
100% 후불제 가구 렌탈

최제왕가구 렌탈

1688-1184/1688-7752

YOKOGAWA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DLM2000 MSO SERIES

·Flexible MSO입력 : 한개의 버튼으로 아날로그 3ch 또는 4ch + 로직 입력 8bit, 최대 11개의 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125M 포인트) 메모리로 장시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